

2019 국별 진출전략

에콰도르



CONTENTS

2019 에콰도르 진출전략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수출입 규모 확대 예상 4
 - 나. 한류 다양한 분야로 확산 5
 - 다. 정부 인프라투자 전력 분야에 집중 5
 - 라. 개방주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 2. 시장분석 14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 나. 수출입 16
 - 다. 투자진출 18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9
 - 가. 교역 19
 - 나. 투자 21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4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 3. 한-에콰도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3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4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5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6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5.1	15.3	15.5	16.4	16.6	16.9	17.1
명목GDP	십억 달러	93.7	100.5	102.6	100.4	103.1	107.0	110.9
1인당 명목GDP	달러	5,720	5,960	6,185	6,077	6,199	6,343	6,483
실질성장률	%	4.5	5.0	0.2	-1.5	3.0	1.3	1.8
실업률	%	4.7	1.3	4.3	5.2	5.7	5.2	6.0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3.7	3.4	1.2	0.4	-0.2	2.0
재정수지(GDP대비)	%	-4.6	-5.2	-5.1	-7.5	-3.4	-4.8	-2.1
총수출	백만 달러	26,693	26,604	18,267	16,797	19,122	22,800	24,000
(對韓 수출)	"	48	342	245	94	127	-	-
총수입	"	-26,178	-26,671	-20,973	-15,550	-19,844	-23,900	-25,600
(對韓 수입)	"	919	811	641	434	608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15	-67	-2,706	1,247	-722	-1,100	-1,600
경상수지	"	-923	-524	-2,114	1,435	-300	100	-1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	1	1	1	1	1	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5.0	5.8	0.9	1.2	1.0	1.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7.0	5.4	7.1	7.4	6.0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원: IHS Country Report(2018년 10월), KITA 대한 수출, 수입액

나. 경제전망

□ 2019년 에콰도르 경제 소폭 성장 예상

- 2019년 에콰도르 경제는 대내외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1.8% 성장전망
 - 수출입 증가, 성장국면 진입: 2018년 8월 기준 수입은 전년 대비 15%, 수출은 11%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對미 수출도 10% 이상 늘어남. 2019년에도 미국 경제 2.5% 성장전망(IMF)
 - 실용주의와 개방주의 노선 지속: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서명. 자동차 수입쿼터제 등 수입규제도 철폐됨
 - 유가안정 전망: 국제유가는 2019년 70~75달러, 2020년까지 70~80달러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 에콰도르는 석유산업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유가안정에 힘입어 2018년 1.3%, 2019년에는 1.8% 성장이 전망됨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장기적으로 유가 안정 전망
- 미국 경제성장으로 對미 수출증가 예상
- 한국산 자동차 對에콰도르 수출 점진적 증가
- 한류 확산. 한국 식품 및 화장품,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증가
- 공공 인프라 투자 전력분야 집중 예상

가. 수출입 규모 확대 예상

□ 수출 증가 및 장기적으로 유가안정 전망

- 에콰도르 경기가 유가회복 및 FTA로 인한 수출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IHS Markit은 2019년 유가를 배럴당 70~75달러로 전망하고, 에콰도르 경제도 이에 힘입어 2019년 1.8% 성장을 예상함. 특히 2020년까지 WTI가 70~80달러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증산을 추진하고 있음
- 에콰도르 정부 재정수입의 30%를 석유부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가안정과 석유증산이 국가 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에콰도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수출국임. IMF는 2019년에도 미국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성장률을 2.5%로 전망함.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에콰도르의 對미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산 자동차 對에콰도르 수출 22% 증가

-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확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에콰도르의 對세계 무역량이 15% 증가함(2018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중산층이 신차 구매를 늘리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對에콰도르 수출이 22% 증가함(2018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17년 자동차 수입쿼터제가 철폐된 것도 국산차의 에콰도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됨. 수입쿼터 철폐와 내수 증가로 對에콰도르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한류 다양한 분야로 확산

□ 한류 확산으로 다양한 수출기회

- 에콰도르는 한류의 선도국은 아니지만, 신세대 사이에 한류가 하나의 주류 문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요즘 에콰도르 한류는 단순히 한국 가수들의 노래나 의상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동호회 회원들끼리 정기적으로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한국음식을 경험하는 등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단계까지 와있음
- 한국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화장품은 물론 한국산 피부미용기기에 관심을 갖는 등 한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됨

□ 한국식품 현지 식약처(ARCSA) 허가신청 증가

- 한국식품을 찾는 현지인이 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수입하던 바이어들이 정식으로 현지 식약처에 등록하고 대형마트 납품을 추진하는 등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식품 판매가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라면, 과자를 중심으로 10건의 식약처 허가가 완료되었고, 2018년에 30건 이상의 한국식품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

□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현지진출 증가

-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제품의 품질이 낮고 수입품은 고가여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적음. 한류팬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현지 진출 증가추세.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은 물론 샴푸, 컨디셔너, 탈모방지 샴푸 수입도 추진되고 있음
- 일부 현지 대기업은 한국 화장품을 들여와 전문 브랜드숍 개장을 추진 중이며, 위생등록 및 수입허가 절차를 진행 중

□ 한국산 주류 수입 시도

- 한국음식과 함께 소주, 막걸리, 과실혼합주 등 한국산 주류를 맛보려는 에콰도르 현지인들이 늘고 있음. 일부 업체가 한국 주류를 정식 수입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선보일 예정

다. 정부 인프라투자 전력 분야에 집중

□ 전력 생산량 급증

- 에콰도르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단기·중기·

장기 계획을 포함한 ‘국가전력 마스터플랜’을 추진해 옴. 전력 마스터플랜에는 발전원을 화력에서 수력 중심으로 변경하는 ‘전력에너지 매트릭스 변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보고 이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함

- 이런 정책에 힘입어 전력생산량은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7년 2만 8,049Gwh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함

□ 미주개발은행(IDB) 자금 활용, 송배전망 확장에 집중 투자

- 수력발전소 증가와 함께 국가 전력송배전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IDB 자금을 도입한 전력분야 프로젝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2019년에는 송전망 확충 및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도입하는 배전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임
- IDB도 매년 2억 달러 정도를 전력 프로젝트에 대출해주고 있음. 향후 IDB의 에콰도르 대출 예정금액은 30억 달러임(2018년 11월 기준 승인 프로젝트)
- 송전선로 및 변전소 확장, 배전 현대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압 케이블, 자동개폐기, 디지털 미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부 인프라 투자 전력 분야 집중

- 에콰도르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9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함. 에너지 관련 투자예산이 7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전력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임

□ 산업부와 IDB, 중남미 섬과 산간오지 전력사업 지원에 협력

- 산업부와 IDB는 전력공급이 제한된 중남미 지역 섬과 산간 오지 지원사업에 협력할 계획임. 풍력, 태양광 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먼저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한 ESS 구축 타당성조사 중

라. 개방주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 정부의 경제·산업·통상 관련 실용주의와 개방주의 노선 유지 및 강화

- 실용주의: 경제·산업·통상 문제는 실용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펴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경지대 마약조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함. 경제·통상 문제에서도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과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함.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시작하였음

- 개방주의: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6월 25일 FTA 서명을 했음. 또한 태평양동맹(PA) 가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미국, 멕시코, 한국, 터키와 통상협정 협상의사를 표명하였음. 이 외에 2018년 일본과 수교 10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 보완협정 관련 협의도 개시하였음

〈2019년 주요 일정〉

- 에콰도르 지방자치단체 선거 : 2019년 3월
- 한-에콰도르 통상협정 협상 재개 : 2019년(미정)
- 에콰도르-미국 통상협정 재협상 개시 : 2019년(미정)
- 에콰도르-일본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 : 2019년(예상)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부규모 및 재정지출 축소 예정
- 유가안정으로 2020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기성정 국면의 초입
-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우리 자동차 수입 증가 전망
- 한류 다양한 분야로 확산

가. 정치 환경

□ 현 대통령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한 전 정부와의 단절 노력으로 여당 분당(여소야대 정국)

-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은 여당 출신이나, 부패청산을 통해 전 정부와의 단절을 피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2018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꼬레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 또한 현재 전 부통령인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는 부패혐의로 탄핵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전 꼬레아 대통령도 부패 및 야당 의원에 대한 납치시도 등으로 기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임(현재 외국 거주 중으로 영장집행은 안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내 꼬레아 대통령 지지의원 30명이 탈당함. 이에 전체 의원 137명 중 76명으로 과반을 유지했던 여당은 현재 40석만 남게 되어 여소야대 정국임
- 이에 현 여당은 정책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전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구사는 어렵게 됨. 현재는 경제 분야에서 야당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 3월 24일 4년 임기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이번 선거는 여당에 대한 민심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나. 경제 환경

□ 현 정부의 경제계획안

- 국가재정 정상화 및 건전성 확보
 - 국가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 감소, 세수 확대, 이자 부담이 낮은 국제금융기구 차관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8년 GDP의 5.64%에 달하는 적자규모를 2021년까지 2.47%로 낮추겠다고 밝힘
 - 세수 확대를 위해 탈세방지 세무조사 강화 및 현행 고소득자(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세금 감면에 대한 합리적 조정
- 정부규모 축소
 - 정부 지출감소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정리하고 조직 내 인력도 축소하여 연간 10억 달러가량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힘
 - * 산업생산성부(MIPRO)는 대외무역투자부(MCEI)와 통합하여 통상산업부로 통합되며, 현재의 대외무역부 장관이 담당함. 석유부·전력부·광업부를 에너지부로 통합하고 법무부는 법무인권부로 개편됨. 국방부는 국가안전처를 흡수. 국정홍보처 폐지. 국가개발계획처와 법제처는 대통령 비서실로 통합. 국세청과 관세청 통합. 환경부가 수자원청 흡수 통합. 또한 관용차 1,000대를 매각하고, 공무원 직접 고용이 제한됨
 - 22개 공기업 중, 실적이 낮은 7개 공기업도 민영화 추진
 - * 국영 통신회사와 우체국, 항공사 구조조정 또는 매각 추진
-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국가재정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4월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계획안(Plan Economico)을 발표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4대 기조(국가재정 정상화, 정부규모 축소, 국제수지 균형, 제조업 부흥) 및 이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함
- 2017년 5월 출범한 정부의 경제계획안 발표가 늦어진 데에는, 전 정부에서 전달한 정보의 불확실성 및 전 정부의 분식회계로 실제 정부재정 상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민간투자 유치 노력
 -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외환유출세(ISD)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도 최대한 민간자본으로 진행 예정

다. 산업 환경

□ 자동차산업 개요

- 에콰도르에는 4개의 자동차 조립생산* 업체가 있으며, 국내수요의 36%를 담당함. 2017년 에콰도르 자동차 판매량은 10만 5,077대이며, 이 중 국내 조립생산은 3만 8,344대, 수입산은 7만 203대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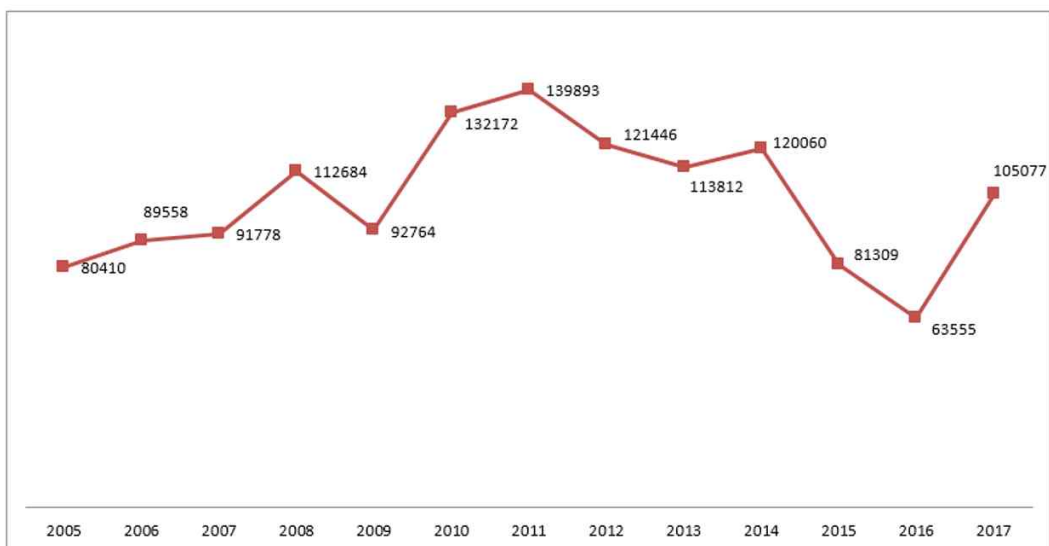
* OMNIBUS BB(72%), AYMESA(13%), MARESA(11%), CIAUTO(4%)

- 자동차 판매량은 2016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6만 3천 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17년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입쿼터제 철폐로 10만 5천 대까지 회복함
 - 판매량 증가세는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완성차 이외에 A/S용 자동차부품도 연 3억 달러 정도 수입됨. 자동차 A/S에 사용되는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한국,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 수입됨. 2015년까지는 미국산 부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 부품은 매년 3천만 달러 정도 수입됨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수)

구분	국내산	수입산	총 판매량
2005	29,528	50,882	80,410
2006	31,496	58,062	89,558
2007	32,591	59,187	91,778
2008	46,782	65,902	112,684
2009	43,077	49,687	92,764
2010	55,683	76,489	132,172
2011	62,053	77,840	139,893
2012	56,395	65,051	121,446
2013	55,509	58,303	113,812
2014	61,855	58,205	120,060
2015	43,962	37,347	81,309
2016	26,786	31,761	63,555
2017	38,344	70,203	105,077



자료원: 에코도르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달러)

수입국	수입 금액			증감 2017/2016
	2015	2016	2017	
총계	272,443,114	213,128,675	267,727,782	25.6
중국	55,961,131	45,964,800	67,148,582	46.0
미국	56,597,529	37,576,055	48,496,313	29.0
한국	36,177,775	29,379,347	32,660,551	11.1
일본	25,826,638	27,760,666	27,576,543	-0.6
콜롬비아	26,611,711	14,300,786	20,108,515	40.6
브라질	17,368,869	14,090,169	17,728,485	25.8
타이완	9,796,129	10,036,416	11,774,809	17.3
대만	11,369,951	7,534,230	9,798,940	30.0
멕시코	8,397,789	5,982,916	6,085,208	1.7
독일	5,754,333	4,933,618	5,847,057	18.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화장품 산업 개요

- 중남미 지역 화장품산업위원회(El Consejo de la Industrias de Cosméticos, Aseo Personal y Cuidado del Hogar en Latinoamérica, CASIC)의 조사에 의하면, 에콰도르는 매년 화장품 부문 시장규모가 약 18%씩 증가 중임.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부터 ‘생산 매트릭스 변화(산업 고도화)’ 정책을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함. 하지만 국내산은 아직 제품 질이 낮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 화장품 국내생산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로션, 향수, 선크림, 선블록, 핸드 및 바디 크림, 노화방지크림, 샴푸를 주로 생산함. 이 분야 직간접고용은 방문판매 종사자를 포함하여 약 40만임
- BELCORP사는 현지생산을 위해 약 8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영국 컨소시엄인 Bautik Laboratories사는 600만 달러, YANBAL사는 100만 달러, UNILEVER사는 2014~2015년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에콰도르 시장에서 화장품 판매는 2016년에 5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5억 9,400만 달러로 추산됨

[주요 화장품 수입업체 현황]

(단위: 달러, %)

주요 수입업체명	수입액	시장점유율
GRUPO TRANSBEL S.A.	22,044,655	10.4
COLGATE PALMOLIVE DEL ECUADOR SOCIEDAD ANONIMA INDUSTRIAL Y COMERCIAL	20,632,238	9.74
UNILEVER ANDINA ECUADOR S.A.	15,415,344	7.27
PROCTER Y GAMBLE ECUADOR CIA. LTDA.	15,065,693	7.11
YANBAL ECUADOR S.A.	12,694,289	5.99

주요 수입업체명	수입액	시장점유율
CASA MOELLER MARTINEZ C.A.	11,909,098	5.62
PRODUCTOS AVON ECUADOR S.A.	10,214,789	4.82
QUALA ECUADOR S.A.	8,816,367	4.16
JOHNSON Y JOHNSON DEL ECUADOR S.A.	8,237,509	3.89
D MUJERES S.A., D MUJERSA	6,172,331	2.91
PRODUCTOS FAMILIA SANCELA DEL ECUADOR S.A.	5,731,238	2.7
LAS FRAGANCIAS CIA. LTDA.	5,259,581	2.48
KIMBERLY CLARK ECUADOR S.A.	4,281,629	2.02
LANSEY S.A.	3,961,529	1.87
ALMACENES JUAN ELJURI CIA. LTDA.	3,627,424	1.71

주: 2017년 기준

자료원: SICEX

- 화장품 수입액은 2017년 기준 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주요 수입국은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페루, 프랑스임. 한국 브랜드로는 오티(OTTIE), 잇츠스킨(It'S SKIN)이 2015년 에콰도르 수출을 시작했고, 2017년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0만 달러 수준임
- 현지 고급 수입화장품 매장 MAC를 운영 중인 360코스메틱스사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숍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프랜차이즈 뷰티숍 현황

-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피부재생, 트러블, 기미, 홍조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숍이 성업 중이며,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 일부 피부관리숍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지점을 늘리고 있어, 향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의하면 에콰도르 스킨케어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7년 기준 1억7000만 달러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성장함. 이 중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은 5700만 달러에 달함
- 미용의료기기 시장에서 세계적인 메이저는 미국 업체이지만 K뷰티의 영향으로 한국 미용의료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장비는 한 대당 역대가 넘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부담이 되지만 국내 장비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음
- 한국산 레이저, 초음파 기기뿐만 아니라 한국산 화장품까지 판매하면서 K뷰티 전문점을 표방하는 업체도 성업 중임
- 에콰도르에는 포인트 레이저로 점이나 문신을 제거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룸. 2017년에 일부 피부관리숍에서 레이저빔을 분해해서 넓게 조사하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들여와 영업 중이고, 2018년에 HIFU, IPL 기기가 수입되기 시작함. 업계 관계자들은 에콰도르에서도 앞으로 HIFU 초음파나 IPL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한국산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기계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함

- 레이저 및 초음파 등 피부과용 의료기기는 기타 전기 의료기기 HS Code 9018.90.90으로 분류됨. 2017년 기준 에콰도르 수입규모는 6천만 달러 수준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32.5%), 스페인(25%), 독일(8.9%), 중국(7.3%), 콜롬비아(3.9%) 순임

【 전기의료기기 국가별 수입현황 】

(단위: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점유율
1	미국	20,103,083	15,491,818	19,726,259	32.5
2	스페인	363,915	575,298	15,175,462	25
3	독일	8,867,224	5,158,731	5,417,608	8.9
4	중국	4,501,667	2,255,982	4,423,581	7.3
5	콜롬비아	3,237,753	2,739,649	2,413,395	3.9
6	네덜란드	1,867,850	1,685,291	2,136,989	3.5
7	프랑스	940,549	859,531	1,499,309	2.4
8	싱가포르	400,623	514,404	1,499,030	2.4
9	파나마	2,947,722	1,140,203	1,011,439	1.6
10	홍콩	727,997	575,021	720,474	1.1
11	한국	311,592	187,839	710,869	1.1
12	이탈리아	579,865	629,739	700,571	1.1
	전체	52,209,911	36,918,903	60,528,144	

주: 2017년 기준, HS Code 9018.90.9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라. 정책·규제 환경

□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PCI)

- 에콰도르는 높은 석유 의존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거나 행정절차는 단순화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에콰도르 정부는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PCI)에 따라 2013년도부터 소득세를 22%로 낮추고, 신규 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등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
- 또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COPCI 24조 2항에 따라 기초산업의 신규 투자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국경근방의 기업에 투자 시 12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 기초산업: 제철, 구리, 알루미늄, 셀룰로오스, 석유화학, 조선업

-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경제특구(ZEDE)는 일정 지역을 특별관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역임. 동 구역에 반입되는 수입품들은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 관련 세금면제 및 재정적 특별대우를 제공받게 되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은 에콰도르의 1991년 자유무역지대법을 대체하면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ZEDE)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함. 경제특구지역은 엘로알파로(Eloy Alfaro) 지역, 포소르하(Posorja) 지역과 야차이(Yachay) 지역임

□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쿼터제, 기술무역장벽 TBT)

-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규범을 적용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 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함
-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상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5년 3월에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실시한 바 있음. 이 규제는 2017년에 모두 철폐됨
-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함. 주요 적용 품목은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임. 수입자는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허가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표준원 품질인증서 제출 품목이라 할지라도 FOB 기준 2천 달러를 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아님. 소규모 수입일 경우 본 규정을 이용하면 편리함

2. 시장 분석

- 미 달러 사용국으로 물가 안정, 치안 양호
- 한-에콰도르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장점
-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 달러 사용국으로 물가 안정, 치안 양호

- 에콰도르는 달러 공용화 국가로 미국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타 중남미 국가들이 겪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한 환율급등,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없고 치안상태도 양호함

- 수출 시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저평가로 인한 환율 측면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달러 사용으로 수입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안정, 물가 안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한-에콰도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 에콰도르는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이자 향후 플랜트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새우, 동괴 및 알루미늄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임

□ 해외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적어 우리 기업의 진출여지가 큼

- 에콰도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편이며, 이전 정권의 반미적 성향으로 미국의 기업진출이 덜 활발하며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미 포화상태인 선진국 및 중남미 주요 국가에 비하여 진출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에콰도르 시장은 미국과 일본 업체 진출이 미미하고 해외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적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심하지 않음

□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기반 조성

- 양국 간 산업협력 프로젝트 활발하게 진행
 - 2010년 9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방한 이후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지식 신도시 개발, 전자 통관시스템 도입 등 한국과의 협력이 급속히 확대됨
 - 현 모레노 대통령(당시 부통령)도 2010년 방한 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됨
-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은 2017년 8월 열린 대외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2017~2021년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과제는 외국자본 유치, 무역 강화, 관광산업 촉진이라고 결정함. 또 국제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러시아, 터키, 한국과의 대외무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함
 - 현 정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나. 수출입

□ 에콰도르 시장의 특징과 최근 수출입 동향

-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1차 산업군에 속하는데, 원유와 바나나, 양식새우, 참치, 절화, 커피, 카카오임. 특히 에콰도르는 세계 가공참치 수출의 10%를 차지하며, 태국에 이어 2위의 수출국임. 에콰도르의 수입품 1, 2위는 정제된 석유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탓에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등의 기계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건설업 및 인프라 산업의 성장으로 건설용 기계 및 차량 등의 수입이 증가추세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7
수출	25,721,761	18,365,882	16,797,666	19,122,455	12,580,401
	(3.52)	(-28.60)	(-8.54)	(13.84)	(14.41)
수입	27,516,171	21,375,413	16,188,692	19,844,960	12,966,758
	(1.8)	(-22.3)	(-24.26)	(22.59)	(20.14)
무역수지	-1,794,410	-3,009,531	608,974	-722,505	-386,356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 국가별 수출입 동향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순위	국가	2018. 7
총계		18,365,882	16,797,666	19,122,455	총계		12,580,401
1	미국	7,227,783	5,410,919	6,025,418	1	미국	3,846,092
2	베트남	784,915	1,115,943	1,457,712	2	페루	1,021,301
3	페루	934,168	934,224	1,282,526	3	중국	818,603
4	칠레	1,138,086	1,150,556	1,236,134	4	파나마	756,747
5	파나마	448,354	662,275	935,806	5	베트남	739,633
6	러시아	715,544	769,213	845,311	6	칠레	685,686
7	중국	723,017	656,382	771,887	7	콜롬비아	508,822
8	콜롬비아	781,470	810,457	763,222	8	러시아	495,380
9	스페인	483,481	547,332	600,753	9	이탈리아	415,078
10	이탈리아	325,959	460,932	587,291	10	스페인	337,124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순위	국가명	2018. 7
	총계	21,375,413	16,188,692	19,844,960		총계	12,966,758
1	미국	5,778,320	4,051,920	4,519,377	1	미국	3,070,084
2	중국	3,264,930	2,679,934	3,064,033	2	중국	2,055,146
3	콜롬비아	1,764,622	1,396,323	1,716,118	3	콜롬비아	1,061,027
4	파나마	1,046,352	753,452	1,273,836	4	파나마	971,057
5	브라질	713,115	677,259	866,503	5	브라질	519,704
6	페루	790,241	669,761	830,287	6	페루	488,588
7	멕시코	655,781	500,984	660,038	7	멕시코	418,399
8	스페인	430,091	349,758	620,125	8	한국	385,808
9	한국	791,587	530,113	615,684	9	칠레	311,845
10	칠레	550,997	467,538	560,111	10	독일	307,078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에콰도르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15	2016	2017	2018. 7
		총계	18,365,882	16,797,666	19,122,455	12,580,401
1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6,355,235	5,053,937	6,189,823	4,549,701
2	0306	새우	2,287,600	2,587,433	3,047,028	1,898,289
3	0803	바나나	2,820,261	2,742,005	3,045,157	1,901,794
4	1604	가공·저장 생선	921,255	896,344	1,158,153	725,103
5	0603	절화와 꽃봉오리	820,124	802,461	881,461	543,170
6	2710	석유와 역청유	300,989	380,805	722,230	573,748
7	1801	카카오	705,415	621,970	589,750	279,688
8	1511	팜유	225,386	228,150	208,274	149,805
9	7108	금	680,038	261,864	167,576	99,676
10	2301	여류전분	119,503	157,764	120,466	51,430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에콰도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15	2016	2017	2018. 7
		총계	21,375,413	16,188,692	19,844,960	12,966,758
1	2710	정제유	2,095,835	1,336,400	1,688,117	1,300,901
2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1,604,210	972,449	1,171,040	886,582
3	8703	승용차	524,759	480,657	929,669	656,089
4	3004	의약품	856,474	717,184	738,344	432,592
5	2711	석유가스와 탄화가스	388,155	300,042	469,495	295,491
6	8517	전화기	463,400	375,377	423,190	297,883
7	8704	화물차	376,895	186,508	337,934	263,750
8	2304	오일-케이크	381,282	362,530	322,722	293,034
9	2309	동물사료	167,039	197,393	294,151	179,128
10	1001	밀과 메슬린	252,378	228,777	280,683	180,064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다. 투자진출

□ 투자진출 동향

- 산업별로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기에 자원개발 분야 투자유치가 2016년까지는 가장 활발하였음. 그러나 2017년에는 제조업 투자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에콰도르의 국내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현지 생산 확대 프로젝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농수산업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의 FTA 체결 후 농수산물 해외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산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임업, 수렵 및 수산업	17,786	25,088	38,928	67,818	41,780	124,422
상업	82,975	105,228	141,948	172,875	106,579	97,905
건설	31,112	68,650	4,278	6,834	29,768	56,033
전기, 가스 및 수도	46,853	28,118	-4,671	61,758	1,195	2,129
광산 및 채석	224,945	239,698	490,125	559,834	479,103	64,716
제조업	142,311	134,353	107,602	264,101	36,832	143,096
서비스업						
지역, 사회, 개인 대상	1,698	2,406	14,072	-10,834	-10,095	-3,857
서비스업 기업 대상	39,452	112,975	25,808	243,280	20,887	74,425
서비스업 운송, 창고, 통신	4,179	8,883	-51,072	-43,628	37,994	47,555
총계	591,315	702,823	766,452	1,322,038	744,041	606,425

주: 2017년 12월 기준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85,867	94,326	79,032	113,877	57,835	84,677
2	스페인	49,843	70,573	67,322	71,164	102,303	79,867
3	카이만제도	-101,950	1,500	12	-	-	68,834
4	우루과이	6,488	115,211	62,461	43,032	385	60,865
5	칠레	15,895	23,506	18,189	77,627	14,420	44,638
6	네덜란드	10,517	48,321	75,956	293,401	381,876	40,285
7	미국	93,513	41,913	10,099	186,172	87,598	34,965
8	파나마	25,205	54,503	27,575	17,608	24,539	21,284
9	이탈리아	27,410	60,673	27,187	25,208	43,090	19,280
10	코스타리카	4,414	9,210	17,343	7,688	6,779	15,955
11	버진제도	50,801	4,388	15,761	57,208	15,767	15,170
12	콜롬비아	8,158	-1,277	19,683	13,863	24,557	13,844
13	영국	18,707	1,270	25,377	20,611	34,385	11,152
14	베네수엘라	17,937	20,119	20,302	21,980	3,584	10,588
15	페루	12,762	11,731	6,673	169,533	6,110	9,056
	총계	567,475	727,000	772,257	1,322,477	755,393	606,425

주: 2017년 12월 기준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 투자진출 진입장벽

- (투자협정 부재) 2017년 5월 코레아 전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대통령령을 통해 16개국(영국, 독일, 중국, 스위스, 칠레,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스페인, 페루, 볼리비아, 이탈리아)과 양자투자협정을 일방 종료시킨 바 있음. 에콰도르 정부는 신규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비자 문제로 초기진출에 불편) 현지법인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ervicio de Rentas Interna, SRI)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VISA)를 소지해야 함
- (반기업적 노동법에 의한 애로)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어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므로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함
- (일부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투자진출 분야 중,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 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 분야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외제

가. 교역

□ 한-에콰도르 교역동향

[한-에콰도르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3	919,924	7.4	48,399	22.5	871,525
2014	811,542	-11.78	342,493	607	469,049
2015	641,282	-21	245,724	-28.3	395,558
2016	434,241	-32.3	94,246	-61.6	299,267
2017	608,864	40.2	127,802	35.6	481,061
2018(5월)	311,740	39.7	57,430	-2.5	254,309

주: 2018년 5월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6		2017		2018. 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34,241	-32.3	608,864	40.2	311,740	39.7
1	8703	승용차	102,171	-27.8	227,971	123.1	105,020	28.2
2	8708	자동차부품	72,349	-32.1	92,775	28.2	41,681	3.1
3	9013	액정디스플레이	15,918	4	29,747	86.9	18,138	103.3
4	8529	방송수신기	17,675	166.9	15,807	-10.6	3,867	67.5
5	2917	폴리카르복시산	15,859	-13.7	14,420	-9.1	4,042	-26.1
6	3923	플라스틱 용기	11,546	-2.3	14,300	23.9	6,737	16.4
7	303	냉동어류	11,642	432.9	14,039	20.6	10,711	645.7
8	8429	건설중장비	3,158	-22	11,970	279	9,474	323.7
9	3002	의료 백신	9,213	-49.6	11,814	28.2	4,191	90.4
10	3901	에틸렌중합체	8,940	-56.7	10,783	20.6	10,983	269

주: HSI 4단위 기준, 순위는 2017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		2018. 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02	35.6	57,430	-2.5
1	306	새우	65,826	28.4	33,275	43.1
2	803	바나나	35,360	66.1	17,884	-22.5
3	7404	동괴 및 스크랩	17,373	17.8	2,617	-64.2
4	8481	파이프, 밸브	1,521	-	0	0.0
5	8902	선박(어선)	1,298	0	0	0
6	2301	생선가루	835	19	596	182.6
7	1801	코코아	677	-45.7	303	-6.2
8	2101	커피류	630	3.9	243	84.1
9	304	어육	610	-1.2	763	691.2
10	7602	알루미늄 스크랩	583	73.3	189	-30.1

주: HSI 4단위 기준, 순위는 2017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수출 성공사례: 한국 육모파종기 에콰도르 첫 수출

- KOTRA 키토 무역관은 최근 에콰도르 농업 환경이 대형 농업회사 중심에서 소규모 농장주로 재편되는 변화를 감지, 이에 따라 미국식 대형 트랙터, 콤팩트 위주에서 한국, 일본의 소형 트랙터를 찾는 바이어에 관심을 갖고 한국 농기계 기업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함. 그러던 중 선진농법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구아야스 지역의 O사를 발굴, 한국식 농법을 제안하며 수차례 상담을 진행. O사는 그동안의 직접 파종 벼농사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이앙기를 이용한 선진농법으로 생산량 확대를 원함

- 키토 무역관은 바이코리아를 통해서 육묘파종기를 수출하는 한국 K사를 발굴하여 현지 바이어와 연결함. 무역관은 이양기와 육묘파종기 사용 동영상도 제공하였고, 바이어는 육묘파종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입을 결정함
- 한국 K사 대표이사는 에콰도르 키토 수출을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의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육묘파종기, 상토제조기, 발아기 등을 세트로 구성해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함

□ 수출 실패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 우리 음료수업체 H사는 알로에 음료를 현지 파트너를 통해 수출하고 있었으나, 판매가 늘어나자 현지 파트너가 독자적으로 유사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함. 이미 에콰도르 시장에서 인지도가 생긴 우리 업체의 브랜드를 제품용기에 그대로 사용함
- 우리 H사가 법적 대응을 결정했을 때는 현지업체가 재빠르게 브랜드를 라벨에서 삭제하고 다시 판매함. 결국 우리 기업은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IEPI) 상표등록이 필요함

나. 투자

□ 투자진출 현황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연도별 추이]

(단위: 건, 개, 천 달러, 회)

구분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6	3	3	520	4	93
2007	7	4	7,818	11	5,038
2008	9	3	28,712	19	3,687
2009	4	4	294	8	424
2010	1	0	42	0	0
2011	13	3	25,234	10	21,796
2012	25	4	26,519	21	992
2013	38	2	1,719	33	1,558
2014	52	3	5,443	51	5,027
2015	30	2	11,575	37	4,698
2016	9	1	257	1	25
2017	5	2	6,043	4	6,038
2018*	1	0	55	1	55

주: 2018년은 상반기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기업 진출현황

- 2001년 10월 삼성전자 지사 설립
- 2002년 2월 LG전자 지사 설립
- 2007년 3월 대우 일렉트로닉스 지사 설립(2009년 초 마이애미로 철수)
- 2008년 5월 세라젼 에콰도르 지사 설립
- 2008년 12월 SK건설 지사 설립
- 2011년 포스코건설 투자진출(2017년 4월 철수)
- 2011년 한솔 EME(주) 지사 설립
- 2012년 대우조선해양 투자진출(2015년 7월 철수)
- 2016년 LS산전 지사 설립
-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SK건설, LS산전, 한솔EME, 청해종합기술공사, 건화, 세라젼 등 8개사 영업 중

□ 우리 기업 투자 성공사례: 우리 정부 ODA를 활용한 현지 진출

- 한국전력, 우진산전 컨소시엄은 2016년 갈라파고스 산크리스토팔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산자부 ODA 자금으로 1Mwp 태양광 발전소를 갖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프로젝트를 제안함. 2018년 사업수주에 성공하였고, 이후 600억 원 규모의 본사업에 도전할 계획임. 기업들은 정부 ODA 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

□ 우리 기업 투자 실패사례: 프로젝트 코디네이팅 회사와 연결된 불리한 계약과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

- 우리 기업 S사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팅 전문 회사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 시공사로 참여함. 우리 컨소시엄은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사업을 주도한 코디네이팅 회사가 초기에 커미션을 지분정리후 컨소시엄에서 철수함.(우리 시공사 제품 스펙이 계약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 한 것으로 보임). S사는 공사 시작 전에 손실우려가 있었으나, 회사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프로젝트 수주가 급한 기업들이 프로젝트디벨로퍼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시공업체에게 돌아감
- 2년간의 공사와 시험운전을 거쳐 에콰도르 정부에 시스템을 인계하였으나, 이번에는 감리가 설계 및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였고 발주처는 인수 거부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표명함
- 우리 기업은 소송 대응을 위해 현지 로펌에 의뢰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서류 준비 및 공식대응 미비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임. S사는 시험운영 기준 중 현지 정부가 보낸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는 공문에 공식대응이 미비하였다고 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 가능성 높아짐

- 에콰도르와 한국 정부는 2015년 4월 양국 간 통상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을 개시한 바 있고, 2016년 11월까지 총 5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양국의 정권교체기, 신정부의 통상 관련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가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지 섬유업 및 자동차 조립업체들이 동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 이후 양국 간 통상협정의 장점을 홍보해온 우리 측 노력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아짐
 - 현재 추가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 간 실무 논의 진행 중

□ 갈라파고스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무상원조+투자진출 지원)

-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ODA 사업으로 2016년 F/S가 완료되었고, 2018년 사업승인 및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
 - 2019년 착공되며, 갈라파고스 산크리스토타 섬에 1Mwp 태양광발전소와 1.4Mwh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설치될 예정임
- 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ODA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면서 산크리스토타 섬에 7Mwp 태양광, 33Mwh ESS로 구성된 민간발전사업을 에콰도르 정부에 제안할 계획임. 프로젝트 규모는 600억 원 정도로 추정

III 진출전략

- 장기 성장 및 한류 확산 관련 수혜품목 발굴로 우리 제품의 역량 확대. 우리 정부 ODA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 미 달러 사용으로 환위험 없는 에콰도르를 안데스공동체(CAN)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협소한 국내시장 극복. 현지 조립·생산 전략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성장세에 편승하는 에콰도르 진출을 추진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에콰도르 지역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유가안정으로 계속 성장 예상 •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우수 • 실용주의와 개방주의 노선 • 미 달러 사용 국가(물가안정, 환위험無)	약 점(Weakness) • 석유 의존 경제 • 낮은 국가신용도와 부패지수 • 잦은 내각교체로 업무연속성 확보 애로 • 자연재해 노출(지진, 화산 등)
기 회(Opportunity) • 한-에콰도르 우호관계 및 통상협정(SECA) • 한류 다양한 분야로 확산 • 전력 분야 공공투자 집중 •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정부 ODA 추진	위 험(Threat) •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 • 협소한 국내시장 • FTA로 EU 제품 경쟁력 증가 •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성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장기 성장세와 통상협정의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추진 • 한류가 확산되는 분야에 맞춰 집중투자	장기 성장 수혜 및 한류 활용 품목 발굴
ST 전략 (강점 활용)	• 한류 및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타 국가 제품의 공세 극복 • 미 달러 사용국으로 안데스공동체(CAN) 시장의 본부로 적합 → 협소한 국내시장 극복	안데스공동체(CAN)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신재생에너지 ODA를 활용한 진출 • 전력 분야 프로젝트 수요 예상품목 공략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현지 조립·생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신기술, 고품질 제품으로 마케팅	현지 조립·생산으로 가격 개선 노력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유가안정으로 인한 장기 성장국면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가안정으로 에콰도르 경제 2020년 이후까지 장기 성장 예상됨 ○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 14%에서 27%로 늘어나는 사회구조 변화 포착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콰도르는 고유가와 정부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1년에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말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와 달러강세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2016년에 0.3%의 성장률을 기록함.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7년부터 경기 반등이 시작됨

- IHS는 장기적인 유가안정, 무역부분 개방정책, 국내 물가안정의 요인으로 에콰도르 경제가 2020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IHS, 에콰도르 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2026
성장률	3.0	1.3	1.8	2.5	2.9

- 2010년 초 평균 46만 6천 배럴까지 떨어졌던 에콰도르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다시 안정적 증가세를 되찾아, 2012년 7월에는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인 평균 50만 8백 배럴을 생산했음. 2018년 말에는 예전의 53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생산량을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임
- 장기적으로 WTI가 70~75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석유산업이 GDP의 15%, 총 수출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유가안정과 증산이 에콰도르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
-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6월 25일 FTA 서명을 했음. 또한 태평양동맹(PA) 가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미국, 멕시코, 한국, 터키와 통상협정 협상의사를 표명하였음. 현 정부의 무역개방 정책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달러 공용화 정책 도입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2000년 미국 달러를 공용통화로 사용한 이래 물가가 안정됨.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가도 에콰도르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속 성장에 따른 인구증가와 증산층 확대에 사회구조 변화
 - 2010~2016년 에콰도르의 인구는 연평균 2.3% 이상 성장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성장률 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임. 또, 2005~2015년 10년간 에콰도르 경제는 연평균 4.8%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증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27%로 늘어남. 늘어난 증산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패턴이 나타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가안정 등 대내외 요인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및 스마트 TV 등 고급 가전 부문의 매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함. 2016년 6만 대 수준으로 추락했던 국내 자동차 판매가 2017년 10만 대 수준으로 회복됨. 장기성장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도 늘어나 2018년 8월 기준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11% 증가함

- 에콰도르 경기가 장기성장의 초입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자동차 및 부품, 스마트 TV 등 가전 부문은 현지 조립·생산(CKD)을 통한 진출이 좋아 보임
 - 기아자동차가 이미 일부 모델을 아에키아(AEKIA)를 통해 현지 생산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현지 조립·생산을 위해 관련 업체와 협상 중임.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현지 조립·생산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고려하고 있음
 - 삼성전자가 엔사브(Ensab)를 통해 스마트 TV를 생산 중이고, 2018년 생산 라인을 확장함. LG 전자도 이나센사(Innacensa)를 통해 스마트 TV를 생산 중임
- 공장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보다는 현지 전문업체에 조립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출할 것을 추천함. 노동법 등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의하면, 에콰도르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및 기능성 화장품 등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이 5,700만 달러로 성장함. 특히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피부재생, 트러블, 기미, 홍조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숍이 늘어나고 있음
 - 레이저, 고주파(RF), 직속초음파(HIFU)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갖춘 피부관리숍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피부관리숍은 지점을 늘리며 정식 체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특히 한국산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한국산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과감하게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에콰도르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최근에는 저가의 조잡한 중국산 제품도 수입되고 있음. 미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고 효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 제품의 장점을 밀착 영업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수도 키토 지역에 있는 2개의 유명 피부미용학원 출신 피부관리사 상대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장진입을 추천함
 - 한국산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치료하고, 한국산 화장품, 미용팩 등을 같이 취급하는 한류 토탈 뷰티숍 개념의 프랜차이즈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임

나. 한류 확산분야 집중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에콰도르 현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특정 브랜드 전체 제품을 들여와 브랜드숍 오픈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포착됨. 한국식품, 주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에콰도르 대기업 중 K뷰티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자채 대형 마트와 뷰티숍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수입을 추진 중이며, 브랜드숍 및 자채 유통망을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 잇츠스킨과 오피, 뷰티프랜드사는 이미 에콰도르 시장에 진출해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위생등록 및 수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화장품이 에콰도르에 정식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 기준 수입 규모는 30만 달러 수준임.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 체인 슈퍼막시(SuperMaxi)를 보유한 에콰도르 최대의 유통기업인 라파보리타(La Favorita) 그룹은 2018년 한국 SELKIN 미용팩을 직접 수입, 유통하기 시작함. 라파보리타 그룹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직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몇 년 내에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에콰도르 대형 유통체인들은 매장 내 별도 화장품 판매 섹션을 통해 Eucerin, Bioterm 등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된 기초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미용팩은 물론 고급화장품도 판매하고 있음

□ 현지 대형 유통체인 입점이 핵심

[유통업체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

브랜드명	회사명	2012	2013	2014	2015
Supermaxi	La Favorita CA	8.2	9.1	9.4	9.8
Megamaxi	La Favorita CA	7.4	7.7	8.1	8.4
Hiper Market	El Rosado SA	5.5	6.0	6.6	6.9
Tia	TIA SA	5.2	5.4	5.9	6.1
Mi Comisariato	El Rosado SA	3.6	3.9	4.2	4.4
Aki	La Favorita CA	2.8	3.0	3.0	3.1
Gran Aki	La Favorita CA	2.5	2.5	2.5	2.7
Coral Hipermercados	Gerardo Ortiz Cia Ltda	2.5	2.5	2.3	2.3
Santa Maria	Maga Santa Maria SA	1.0	1.1	1.2	1.2
Super Aki	Favorita CA	-	-	0.9	0.9
Magda Supermercados	TIA SA	0.4	0.3	0.3	0.3
기타		60.9	58.5	55.7	53.8
총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유로모니터

- 한류 확산이 한국제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산 화장품, 식품, 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이 분야 현지 진출의 핵심은 ‘한류마니아라는 한정된 고객층에서 벗어나 어떻게 일반 고객에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찾는 것임

- 하이퍼마켓(Hiper Market), 수페르막시(Supermaxi), 메가막시(Megamaxi) 같은 고급 대형 마트는 물론 띠아(TIA), 아키(AKI), 산타마리아(Santa Maria) 등 서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입점에 집중하는 진출전략을 추천함
- 에콰도르 진출을 원하는 신규 브랜드 입장에서는 대형 마트에 납품할 수 있느냐가 현지 진입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또 대형 마트들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면 단번에 전국 매장에서 제품이 판매됨

다. 국가전력 마스터플랜 적극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수력발전소 증가와 함께 국가전력 송배전시스템 현대화 사업 활발
- 송전선로 확장에 필수적인 고압 케이블, 변전소 현대화를 위한 최신 변압기 및 자동 개폐기, 자동검침을 위한 디지털 미터기 수요 증가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수력발전소 증가와 함께 국가전력 송배전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송전망 확충 및 배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력수출을 위해 페루, 콜롬비아와 송전망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
 - * 국가전력 송배전시스템 현대화 작업은 주로 IDB 자금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송전선로 확충, 배전망 현대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등 전력 현대화 사업 전반에 IDB 자금이 투입됨
- 에콰도르는 평균 정전횟수 5.7회에 평균 정전시간 8시간으로 전력생산, 송전, 배전망의 지능적 관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므로 스마트그리드 수요가 높은 국가로 분류됨. 특히 안정적으로 배전망을 관리하는 DMS 시스템이 없어 정전이 잦고 평균 정전시간이 긴 편임
- 발전, 송전, 배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함. 2014~2016년 3년간 배전망 개선사업에만 4억 8천만 달러가 지출됨. 연평균 전력부문 현대화에 투자되는 금액은 송전, 변전, 배전을 통틀어 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됨(지진피해 복구 긴급 전력 공사 제외). 총 자금의 40% 정도는 IDB에서 조달됨
- 향후 투자규모도 연 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수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확충 등 발전, 송전 용량 확충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배전망 자동화 및 AMI 쪽으로 프로젝트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판단됨
 - * 프랑스개발은행(AFD) 지원으로 2018년 마무리된 ‘스마트그리드 투자계획’은 에콰도르 스마트그리드 관련 우선 투자 프로젝트 26건을 제안함.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향후 7,500만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임

[스마트그리드 투자계획]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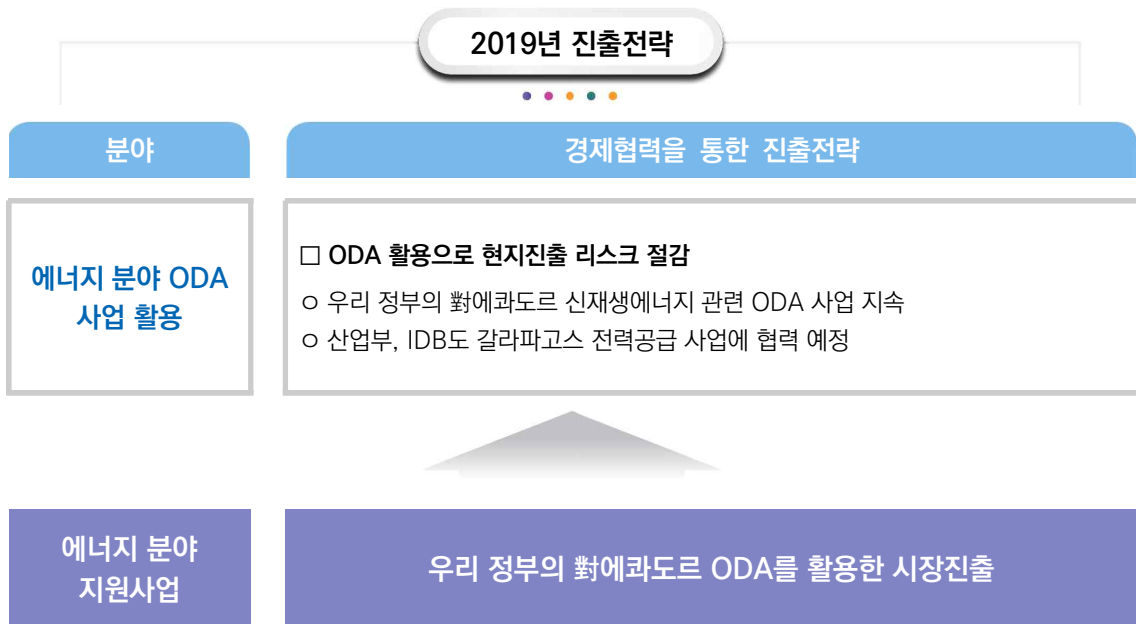
순번	프로젝트	규모
1	Data Management Center	3,900,000
2	BIG Data application	722,000
3	AGC extension	132,000
4	Audit of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 + proposal of a new architecture	145,000
5	Cyber Security Audit	150,000
6	Automation of the MT distribution network	49,000,000
7	Training to digital change	119,000
8	Training of distribution operators	211,000
9	Reinforcement of work teams	140,000
10	Tablets for maintenance equipment	1,000,000
11	Study of the energy mix for Galapagos	22,000
12	Asset Management System	630,000
13	Development of a laboratory for Smart Grid technologies	800,000
14	Function FDIR and VVC	245,000
15	Grid Code for connecting producers and private substations	110,000
16	Deployment of a telecom hypervisor	215,000
17	Implementation of an electricity market	2,530,000
18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29,000
19	Pilot project electric vehicle	1,131,000
20	Update of CC and CENACE and transelectric and installation of a backup	7,800,000
21	Deployment of a centralized platform for the supervision	600,000
22	Studies for FACTS and SVC deployments	100,000
23	Development of a training center for distribution	850,000
24	Leveling of the WAMS platform	3,000,000
25	Leveling of the SPS platform	2,000,000
26	Telecommunications network deployed in the MT network	-
	합계	75,581,000

자료원: 에과도르 전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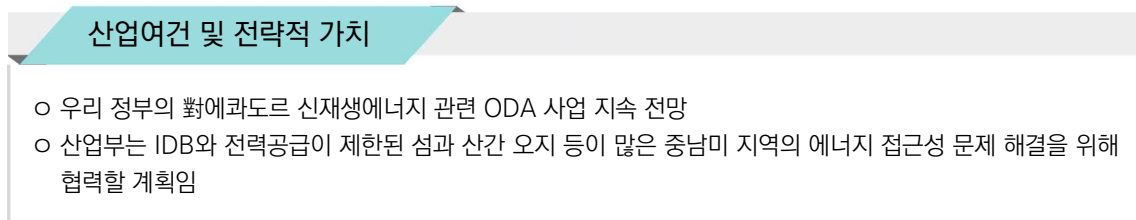
□ 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송전선로 확장에 필수적인 고압 케이블, 변전소 현대화를 위한 최신 변압기 및 자동 개폐기, 자동검침을 위한 디지털 미터기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8년 9월 중국산 변압기 및 개폐기를 설치했던 국가송전망의 주요 변전소에서 제품 불량으로 수도 키토와 인근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함. 한국제품은 자체 점검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산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한국제품을 사용했다면 이번과 같은 정전사태는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음. 우리 기업들은 이번 일을 향후 영업에 활용할 것을 추천함
- 에과도르 전력부는 프랑스개발은행이 지원한 ‘스마트그리드 투자계획’에 따라 향후 스마트그리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이 투자계획에 언급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주나 제품 공급을 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임

3. 한-에콰도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우리 정부의 에콰도르 ODA를 활용한 시장진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를 지구촌을 대표하는 환경의 메카로 보존하고자 2020년까지 갈라파고스섬 전력수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함
- 우리 정부도 2017년 코아카(KOICA)를 통해 발트라(Baltra)섬에 1.5MW급 태양광발전소를 지원함. 1천만 달러 규모 사업으로 도화엔지니어링, 비제이파워, 대성이앤씨, 디자인엑스원, HNC 등 국내기업들이 PMC,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를 수행한 바 있음
- 2019년에도 산자부 ODA 자금을 이용해 산크리스트발섬에 1Mwp 태양광 발전소와 1.4Mwh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지원할 예정임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및 아마존 오지는 IDB의 중남미 지역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함. 우리 산자부도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해 IDB와 협력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산업부 보도자료(2018. 4. 20) 요지: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IDB와 전력공급이 제한된 섬과 산간 오지 등이 많은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풍력, 태양광 발전소에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IDB는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한 ESS 구축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양광 패널, PCS 전력변환장치, 배터리, EMS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초기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현지에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ODA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천함. 이번에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산크리스토팔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 18%에서 32%로 올리고, GCF 자금을 이용한 본 사업으로 최종 목표치인 80%까지 가져가는 모델을 제안할 예정임
- 우리 기업이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산업부, IDB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함
 - IDB 에콰도르 출장소 관계자들도 한국기업이 발굴한 관련 프로젝트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에콰도르 정부와 협의하여 본 프로젝트로 만드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2017/US\$백만)	86	대한수입액(2016/US\$백만)	0.18
	선정사유	품질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 한국 브랜드를 에콰도르에 런칭하려는 바이어 증가		
	시장동향	2017년 수입액 8,674만 2,453달러(△28%)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50%), 페루(11%), 미국(9%)		
	진출방안	중저가 브랜드 위주 진출, 한류 동호회 통한 홍보		
품목명 2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피부미용 의료기기	수입액(2017/US\$백만)	60	대한수입액(2017/US\$백만)	0.7
	선정사유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레이저, 초음파) 성장		
	시장동향	2017년 수입액 6,052만 8,144달러(△100%)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미국(32%), 스페인(25%), 독일(8.9%)		
	진출방안	수도 키토 지역에 있는 2개의 유명 피부미용학원 출신 피부관리사 상대 설명회, 세미나 개최		
품목명 3	HS Code	8544	수입관세율(%)	15
전력 케이블	수입액(2017/US\$백만)	123	대한수입액(2017/US\$백만)	2
	선정사유	송전선로 확장 프로젝트 증가		
	시장동향	2017년 수입액 1억 2,343만 9,152달러(▽23%)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29%), 미국(20%), 칠레(15%)		
	진출방안	전력부 및 정부발주 공사 조달업체를 공략 업체 리스트 입수 후 개별 접촉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A/S 자동차 부품	수입액(2017/US\$백만)	267	대한수입액(2017/US\$백만)	32
	선정사유	자동차 수입쿼터제도 철폐 및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증가		
	시장동향	2017년 수입액 2억 6,772만 7,782달러(△25%)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중국(25%), 미국(18%), 한국(12%)		
	진출방안	에콰도르 상공업의소 부품 바이어 정보 활용		
품목명 5	HS Code	8504	수입관세율(%)	15
변압기	수입액(2017/US\$백만)	88	대한수입액(2017/US\$백만)	1.8
	선정사유	변전소 확장 프로젝트 꾸준히 발주		
	시장동향	2017년 수입액 8,804만 4,654달러(▽27%)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중국(31%), 미국(27%), 스페인(8%)		
	진출방안	IDB 프로젝트 수주 EPC 업체 공략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의하면 에콰도르 스킨케어 전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억 7,000만 달러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성장함. 이 중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은 5,700만 달러에 달함. 프리미엄 스킨케어 고객층을 중심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개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주파(RF), 직속초음파(HIFU) 등 최첨단 기기를 갖춘 피부관리 숍들이 성업 중임
		에콰도르에는 포인트 레이저로 점이나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이 주류를 이룸. 2017년에 일부 피부관리 숍에서 레이저빔을 분해해서 넓게 조사하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들여와 영업 중이고, 2018년에는 키토 시내 B숍에서 HIFU, IPL 기기를 수입하여 홍보 중임. 업계 관계자들은 에콰도르에서도 앞으로 HIFU 초음파나 IPL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
		레이저클리닉(Clinica Laser de Piel): 레이저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콜롬비아에 본사를 두고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에 지사를 운영. 타 중남미 국가로 확장 추진 중 베시에 샤오(Bessie Shao): 수도 키토를 중심으로 지점을 늘리고 있고, 최근 HIFU, IPL 장비를 도입하며 유행을 선도하고 있음.
		한국산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치료하고, 한국산 화장품, 미용팩 등을 같이 취급하는 한류 토탈 뷰티숍 개념으로 접근

□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주요 지자체 단체장 공약 및 향후 프로젝트 조사사업

- 2019년 3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후, 주요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사업을 진행 예정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자체와 네트워킹 구축을 진행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 분야(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기반 구축사업

- 2019년에는 공관과 협업으로 보건의료사절단 유치 또는 KOICA의 전문가 파견 및 공무원 연수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로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예정

□ 주요 도시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지방상권 개척사업 확대

- 2019년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지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호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임
- 방문예정 도시 : 키토, 과야킬, 쿠엥카, 산토도밍고, 만타, 마찰라, 암바토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 에콰도르 쿠엥카(Cuneca)시와 함께 2천만 달러 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임(EDCF 재원). 2019년 에콰도르 재무부의 정부지급보증을 완료하고, 국제입찰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19년 에콰도르 지방선거	3월 19일	지방선거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에콰도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국회동의	2019년(미정)	국회 동의 시도
한-에콰도르 통상협정 협상 재개	2019년(미정)	예상
에콰도르-미국 통상협정 재협상 개시	2019년(미정)	예상
에콰도르-일본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	2019년(미정)	예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xpominas	4월	중장비
Ecuatextil	4월	섬유
Expomedical	5월	의료기기
Expoviajes	5월	여행
Feria de Belleza	7월	미용
Expomec	7월	자동차부품
Feria Construcción	9월	건설
Ecuador Oil and Power	9월	석유개발
Feria Agriflor	10월	화훼

담당자

키토 무역관 황정환

Tel 593) 2 2237-111

직책 관장

Email erickotra@kotra.or.kr

키토 무역관 정지웅

Tel 593) 2 2237-111

직책 현지

Email jeewoongjung@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에콰도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